

청자상감모단문항  
(靑磁象嵌牡丹文缸)

(국보구팔호(國寶九八號))

서울 덕수궁미술관(德壽宮美術館)



청자상감모단문항(靑磁象嵌牡丹文缸)

우리 눈에 흔히 뜨이는 것은 화병류(花瓶類)나 대접(大接), 주전자(酒煎子), 접시 같은 것들이다. 이처럼 큼직하고 둥근 단지, 거기다 상감(象嵌)까지한 청자(靑磁)는 매우 드물다. 높이 20.1cm, 구경 20.7cm, 양면(兩面)에 돌출(突出)한 수면각(獸面刻) 손잡이는 예기(禮器)인 향로각(香爐脚) 같은데도 흔히 보이는, 대륙(大陸)에서 온 전통적(傳統的) 소재(素材)로서 한층 더 고격(古格)을 풍긴다. 시(詩)를 쓴 것 같은 주병(酒瓶)에서는 남자(男子)들의 풍류(風流)를 연상(聯想)하게 되지만 이 단지에는 그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크고 둥근 단지, 하나의 고급장기(高級藏器)로서 주방적(廚房的)인 풍격(風格)을 지녔으며 어느 고려여인(高麗女人)이 아끼고 사랑하던 물건인 것 같다. 어두운 주방(廚房) 안에서 조심스레 이리저리 옮겨지고 닦여지면서 살아온 단지, 비색(翡色)살결과 활짝 핀 백모란(白牡丹)이 조용히 빛난다. 고려(高麗)의 어두운 주방(廚房)에 피던 흰꽃을 보는 것 같다.